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등 6명 2021 한빛대상 수상

한화그룹과 대전문화방송 공동주최

사회봉사 부문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등 수상의 영예

특별상 부문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한성일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1-09-21 08:50

“2021 한빛대상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한화그룹과 대전문화방송(사장 김환균)이 함께하는 ‘2021한빛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전MBC는 지난 8월 20일 접수를 마감한 후, 약 50여 명의 후보에 대해 2회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6개 부문에 대한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사회봉사 부문에는 대전YWCA 유덕순 사무총장, 과학기술 부문은 한남대 이진호 교수, 교육체육진흥 부문은 윤미옥 대전체조협회장, 문화예술부문은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 지역경제발전 부문은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 특별상 부문은 교황청 성직자성 유흥식 장관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대전MBC 창사 57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22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대전MBC 공개홀에서 개최되고, 대전MBC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김환균 대전MBC 사장은 “대전·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대전MBC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민들과 희망과 보람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한빛대상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1 한빛대상 수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 부문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인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은 65년 생으로, 어려운 처지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30년간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다문화가정 여성 지원, 여성의 자립을 위해 헌신해 왔다.



과학기술 부문

이진호 한남대 교수

과학기술 부문 수상자인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57년생으로, 어려운 환경하에서 고분자분야, 인체조직 재생에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업적을 세웠다. 이 교수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산업화하는데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체육진흥 부문

윤미옥 대전체조협회장

교육·체육진흥 부문 수상자인 윤미옥 대전체조협회장은 60년 생으로, 사비를 털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선수들을 꾸준히 후원하며 유망주 발굴에 이바지했고, 전 연령층이 가능한 생활체조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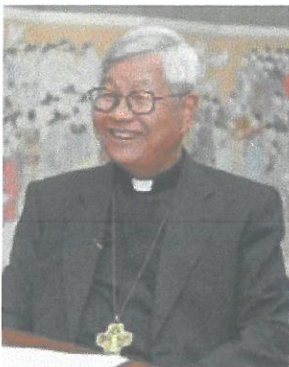
문화예술 부문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

문화예술 수상자인 성낙원 대전시영화인협회 회장은 60년생으로,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를 최초로 기획해 집행위원장으로 20여 년간 활동해왔고, 국제문화예술 작품 교류 활성화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보급에 힘써왔다.



지역경제발전 부문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
표이사

지역경제발전 부문 수상자인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는 58년 생으로, 나노하이테크를 2000년 창업해 고정밀 계측기의 국산화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방산무기 품질평가용 측정기와 전기차 2차전지 성능평가 측정기를 개발해 기업과 사회에 큰 도움을 주었고, 올바른 기업윤리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특별상 부문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특별상 부문 수상자인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은 51년생으로 충남 논산 출생이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을 역임했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교황청의 차관보 이상 고위직에 임명됐다. 그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프린트

취소
